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5년 8월 호)



2024-2025 장학기금 보고: KEF & KLS

Claremont School of Theology의 두 주요 한인 장학기금인 Korean Endowment Fund (KEF)와 Korean Leadership Scholarship (KLS)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 덕분에 꾸준히 성장하며, 한국 신학생들의 학업과 사역을 힘있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FY 2024 회계연도(2023.7.1 - 2024.6.30) 동안, KEF에는 총 \$60,000의 기부금이 유입되어 기금 누적액이 \$2,191,654에 이르렀고, 이 중 4%에 해당하는 \$87,666이 장학금으로 책정되어 \$69,010이 실제로 지급되었습니다. FY 2025년에는 \$300,000이 추가로 모금되어 총 기금은 \$2,491,654로 증가했으며, 이 중 \$99,666이 장학금으로 책정되고 \$78,735가 지급되었습니다.

한편, KLS 장학금은 FY 2024년 동안 \$80,382의 기부가 이뤄졌고, 연말 기준 기금 잔액은 \$640,615였습니다. 이 중 \$36,160이 장학금으로 지급되어 \$604,455이 남았습니다. FY 2025년에는 \$198,530이 새롭게 후원되었고, 총 기금은 \$802,985로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2,487이 장학금으로 사용되어 \$800,498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 덕분입니다. 장학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한국 신학생들이 소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나 자신을 발견해 가는 여정 속에서



〈사진: 이규옥 목사, M.Div'18, D.Min.과정 중〉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캔자스주 Bonner Springs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담임목사로 사역 중인 이규옥입니다. 2015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시작된 제 학문 여정은 신앙과 신학에 깊은 전환점을 가져다주었습니다. 특히 이경식 교수님께서 “여러분은 클레어몬트에서 공부하며 여러분 내면의 신학과 기존 관점이 붕괴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여러분은 더욱 굳건하고 새로운 재건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하신 말씀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처럼, 클레어몬트에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유산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전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신자들 안에만 계신다고 여겼고, 저와 다른 이들을 쉽게 정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교회를 넘어, 외롭고 상처 입은 이들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정의가 필요한 곳, 자비가 요청되는 곳, 평화가 절실한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고정관념을 내려놓게 했고, 언어·인종·문화를 넘어 지역 사회를 섬기는 사역의 의미를 새롭게 보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제가 연합감리교회 Great Plains 연회에서 타 인종 목회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연합감리교회의 파송 시스템에 따라 캔자스의 농촌 지역, 네브래스카의 도시 지역을 거쳐, 지금은 캔자스시티 메트로 지역에 있는 소도시 Bonner Springs에서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년 전, 클레어몬트에서 인연을 맺은 김남중 교수님께서 미국 내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Dinner Church’ 사역을 연구하고 실천해 볼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전통적인 교회나 예배의 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고, 식사와 복음을 함께 나누는 Dinner Church 사역을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교회의 경계를 허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의 자리로 확장하는 또 하나의 귀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삶과 목회를 통해 예수의 사랑과 평화가 풍성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리 놓는 목회자: 다양성과 영성을 향한 여정



〈사진: 이현재 목사, M.Div'21, 박사과정 중〉

안녕하세요! 현재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프랭크 로저스 교수님의 지도로 영성으로 박사학위를 전공 중인 이현재입니다. 오리건 아이다호 미연합감리회에서 2023년에 목회자로 파송을 받아 Keizer Clear Lake UMC에서 담임 목회자로 섬기고 있고, 올해 준회원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박사과정 수업을 마치자마자 파송을 받았을 때, 저에게는 큰 기쁨이면서도 동시에 큰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백인 회중들을 위해 목회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컸기 때문입니다. 클레어몬트에서 공부하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 그리고 언어를 경험하였고, 다양성 속에서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 경험은 다른 문화와 언어로 목회하여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고, 현재는 그러한 고백을 바탕으로 교회에 오시는 성도분들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매일 행복하고 즐겁고, 과분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클레어몬트에서 공부하며 제가 배운 또 한 가지는 상대방에 대한 경청 및 존중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다양함 속에서의 소통은 많은 시간과 인내가 요구되는데, 학교에서 수업 시간 동안 저는 교수님들께서 제 생각과 말을 존중해주시는 것을 느꼈고, 학교 행정을 살피시는 분들과 대화할 때는 저를 위해 그분들이 경청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매일 겸손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교회와 관련하여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는 꼭 성도분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경청하며, 그분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리건 아이다호 연회를 통해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만큼, 저는 계속해서 오리건 아이다호 지역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받은 소명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다리 역할이 되어, 그들을 세상에 소개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식에 따라, 박사학위 졸업논문으로는 오리건 지역에 있는 야카마 아메리칸 원주민들의 영성에 관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클레어몬트를 통해 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받은 만큼, 졸업 후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다양한 사람들의 영성에 관해 연구하고 세상에 소개하여, 그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영성으로 다리를 놓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공부하고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위해 기부해 주신 기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목회자와 신학자가 되어서 살피주신 은혜에 좋은 모습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부자분들의 기도를 통해 학교에서 제가 느끼고 경험한 귀한 가치들을 다음 세대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상담과 여성 리더십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및 발표 이어가



〈사진: 권진숙 교수, Ph.D.'11〉

권진숙 교수(Ph.D. in Pastoral Counseling, 2011)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교에서 목회상담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심리상담 및 목회상담 교수로 재직하며 2025년 8월부터 학생경건처장으로 섬기고 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들의 예배, 소그룹 영성지도, 학생활동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2025년 5월 한국 기독교 상담을 대표하는 두 협회에서 발표했다. 첫 번째로, 한국목회상담협회 봄 학술대회에서 “위기와 격변의 시대, 지친 영혼을 위한 목회돌봄”이라는 주제로 오후 기조 강연을 맡아, 애도와 상실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상담과 돌봄의 목회적 접근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25년 5월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와 온누리교회가 공동 주최한 회복축제 ‘온전함’에서 학술대회에서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으로써의 공감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국내학술대회 발표에 이어서, 이어 2025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실천신학회(International Academy of Practical Theology)에서 논문 “Away from Home, Finding A Spiritual Home Again: A Narrative Study of the Pastoral Experiences of Korean Clergy-in-Training”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수련목회자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그들이 경험한 정체성의 혼란과 영적 방향,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 속에서 영적인 ‘집’을 찾아가는 여정을 조명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 8월 4일부터 6일까지, 권진숙 교수는 미국 오하이오 연회가 주관하는 국제 행사 “Celebrating Methodist Missions in Ohio, Korea, and Beyond: The 140-Year Legacy of Mary & William Scranton”에 초청받아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행사에서는 “Mary Scranton and Women’s Movement”라는 주제의 패널 토론에 참여하여, “Mary Scranton and Women’s Leadership through Ewha Women’s University and the Foundation”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본 발표는 이화학당을 통한 여성 교육과 여성 리더십의 발전에 대한 신학적·역사적 통찰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학술활동과 함께 권 교수는 현재 한국기독교학회 회계, 한국목회상담협회 사무총장, 한국정신분석심리상담협회 총무로도 활동하며, 한국 교회와 상담학계의 발전을 위한 헌신을 지속하고 있다.



〈사진: 이주형 목사, Ph.D.'15〉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교목으로 사역하고 있는 이주형 목사입니다. 저는 CST의 Spiritual Formation 과정에서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인도 아래 학위를 마친 후, 명지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연세대학교 의료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원목실장을 거쳐 현재는 원주의과대학과 간호대학에서 교목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대학과 대학병원에서 기관목회의 길을 열어 주셨고, 그 가운데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왔습니다. 특히 기독교 대학을 통한 학원 선교 사역 속에서 저는 늘 두 가지 시대적 화두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첫째는 ‘탈종교화 시대’라는 점이고, 둘째는 ‘대학이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선교의 최전선이자 황금어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언뜻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교회의 젊은이 사역과 교회학교는 점차 쇠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재는 곧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기독교 대학은 여전히 젊은이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대학생 사역에 참여하며 저는 MZ세대와 이른바 ‘가나안 신자’에 대한 선교적 관심과 목회적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현재 한국 개신교인의 약 1/3, 즉 250만 명이 교회 밖 신자로 분류된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저는 ‘가나안 신자를 위한 기독교 영성’을 주제로 세 편의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CST 실천신학 박사과정을 통해 얻은 학문적·선교적 통찰을 토대로 이루어진 결실이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한국의 MZ세대와 가나안 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신앙 고백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대적 불안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들은 더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신앙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작 자신의 영적 필요가 교회 안에서 충분히 채워지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들의 영적 갈급함과 갈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보다는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머물러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실질적인 의미와 유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호소합니다.

이들이 찾는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공동체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과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경청하고 수용해주는 관계와 공동체입니다. 사실 MZ세대도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문제를 털어놓으면 대부분 ‘기도와 성경 공부’를 권면 받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가 존중 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합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생각을 지닌 이 세대는 일방적이고 단순한 소통방식으로는 안전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둘째, 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는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며 존중하는 공동체입니다. 답을 정해놓고 이끌어가는 ‘답정너’ 식이 아니라, 존재를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할 때,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2026년 기부 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8월 6일 기준 -

이경식 부총장

* 성함은 기부일자 순입니다

기부총액(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8월 6일 기준): \$500

- KEF 잔액(1990.03. - 2025.8.): \$2,491,654
- KLS 잔액(2018.10. - 2025.8.): \$800,498
- General Fund (2024.03. - 2025.8.): \$13,728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Center for Korean American Ministries

- 2025년 1월부터 2025년 8월 기준 -

개인 후원

단체 후원

이병준 회장
이상영 목사

남가주 한인 여선교회 연합회 (Sue Kim 회장)
드림교회 (최요셉 목사)
서부지역연회 (Grant Hagiya 감독)
예수동행교회 (안정섭 목사)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현 목사)
월서연합감리교회 (이영성 목사)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 목사)
크리스찬위클리 (조명환 목사)
Cal-Pac 연회 한인 코커스 (이석부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이창민 목사)

* 성함은 가나다 및 알파벳 순으로 나열한 명단입니다.

기부총액(2025년 1월부터 2025년 4월 기준): \$14,200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